하느님 말씀으로써
교회 가르침의 원천인 성경

신성근 신부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기록하고, 교회 가르침의 원천이 되는 경전이다. 성경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 정치·사회 및 문화와 사상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서구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류에게 귀중한 책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써 모든 신앙의 진리가 담겨있다. 성경의 말씀들은 '좋은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 성경의 형성

1) 구약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서로 종교적 가치들을 보존했다. 하느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예배, 기도, 관습 등을 통하여 후대로 전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고백이 더해지면서 그 내용은 더욱 심화하고 풍부해졌다. 이것이 구약성경이다. 이 구약성경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천 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엮어졌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구약성경은 모두 46권으로, 구약성경의 각 권은 하느님께서 말씀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인 신앙고백을 기록하고 있다.

(1) 모세 5경

창세기 : 세상 창조를 시작으로 신앙 선조(先祖)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탈출기 :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비롯한 율법들을 기록하였다.

레위기 : 전례를 담당한 레위 부족에서 따온 이름으로, 대부분 전례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민수기 :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유다인들의 광야 생활과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 제 2 법전이라는 뜻으로 이집트 탈출을 다시 요약하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맺는다.

(2) 역사서

여호수아기 :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을 서술하고 있다.

판 관 기 :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판관 시대를 다루고 있다.

롯　　기 : 다윗의 조모가 되는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기 상·하권 : 왕정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상·하권 : 바빌론 유배 시대까지의 통치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기　상·하권 :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에 즈 라 기 : 바빌론 유배 이후 성전 건축과 전례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느헤미야기 : 유배 이후 예루살렘에서 도시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　빗　기 : 토빗의 삶과 신앙을 기록하였다.
유딧과 에스테르기 : 하느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카베오 상·하권 : 역사서의 마지막 권이다.

(3) 시서와 지혜서

욥　　기 :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정의와 인간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
시　　편 : 기도와 노래의 형태인 시집으로 성경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잠　　언 :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격언을 기록하였다.
코　헬　렛 : 하느님의 지혜서로 인생의 허무를 읊고 있다.
아　　가 :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다.
지　혜　서 :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혜의 역할을 찬미하고 있다.
집　회　서 : '교회의 책'이라는 뜻으로 격언집이다.

(4) 예언서

대 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소 예언서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비디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쿡, 스바니야, 하까이, 즈카리야, 말라키, 애가, 바룩

이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예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질책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역할과 존재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구약성경의 중심내용

구약성경 안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 이들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일 뿐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이다. 즉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 구원의 뜻을 펼치시고 이끌어 가신 역사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고난과 절망으로 점철된 운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

개하였다. 국가가 융성할 때나, 유배 생활을 할 때나 그 어떤 장소, 어떤 때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손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다.

이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느님과 백성의 계약 역사이다. 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결국 행복이란 물질적인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정의에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하느님과 사람과의 더욱 긴밀한 일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무력한 민족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력함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6) 구약성경의 영적 감도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이 있다. 힘차고 생생하고 드높은 충동이 있다. 이 열정은 자신들의 수많은 죄 중에서도 순수하고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 생명의 호흡을 '영'이라고 부른다. 구약성경 안에서 이 '영'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영'은 '하느님의 영'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사건 안에 계셨고, 말씀 안에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건과 말씀을 기록되도록 이끄셨다. 구약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영'의 작품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해설하고 심화시켰다. 그들의 생각은 모두 하느님의 영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작품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2)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 곧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목격자들인 제자들은 초창기에는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기에 구태여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차츰 사도들과 목격 증인이 줄어들었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여러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복음 선포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이교 문화와 이교도들에게 대항하게 되면서, 전해 받은 계시와 신앙을 기록해 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글로 기록한 단편들을 수집해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기록자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 복음서들이다. 한편, 사도들이 지역교회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하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은 서간이라고 한다. 교회가 인정하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다.

(1) 공관복음

마태오와 마르코, 루카 이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 서로 일치하거나 공통되는 점 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비교와 대조를 쉽게 하려고 공통되는 대목을 한데 모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共觀福音)이라고 한다.

마태오 복음 : 기원후 70년경에 마태오가 저술한 것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한다.

마르코 복음 : 기원후 60년대 말에 로마에서 마르코가 저술한 것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선포한다.

루 카 복음 : 기원후 75~80년경에 이카이야 지방에서 루카가 저술한 것으로, 특징은 예수님은 가련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자들과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한다.

(2) 요한복음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엽 소아시아 지방에서 저술되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 이는 말씀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3)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을 쓴 루카가 기록한 것으로, 보통 기원후 80년경에 아카이야 지방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 이후 그의 제자들과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사도 교회와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4) 서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 지역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훈계하고 권고하는 편지를 말한다. 서간은 모두 21권으로, 각 서간의 이름은 편지를 받는 지방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바오로 서간 : 바오로 사도가 지중해 연안의 각 지방을 다니며 복음 선포를 하는 중에 각 지역교회에 문제에 대해서 자기 뜻과 가르침을 편지로 전하였다. 로마서, 코린토 첫째·둘째 서간, 갈라티아 서간, 에페소 서간, 필리피 서간, 콜로새 서간, 테살로니카 첫째·둘째 서간, 티모테오 첫째·둘째 서간, 티토 서간, 필레몬 서간, 히브리 서간

야고보 서간 : 이 서간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야고보로 알려지며, 저작 연대는 약 1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서간에서는 유다교적 윤리관과 그리스도교적 윤리관을 연결시키며, 믿음에 따르는 행실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유 다 서간 :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고 전해지며, 1세기 말 - 2세기 초에 유다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방으로 추측한다. 내용은 이단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신앙 규범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한 첫째 서간 : 요한이 1세기 말경 소아시아 지방에서 저술한 것으로 본다. 이 서간에서는 신앙과 도덕을 동시에 보존하고,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다 한 인격 안에 지니셨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 유일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자기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권고한다.

요한 둘째·셋째 서간 : 에페소 지방에서 쓰인 것으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속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베드로 첫째 서간 :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65년 이후에 로마에서 저술하였다. 내용으로는 세례는 하느님의 선물인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친다.

베드로 둘째 서간 : 1세기 말엽으로 추정되며, 장소는 로마인지 이집트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주된 내용은 종말에 관한 의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은 희망을 가리라고 권고한다.

(5) 요한 묵시록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Patmos) 섬에서 계시를 받고 썼다고 전해지며, 이 묵시록처럼 어려운 책도 없다. 묵시록은 신비에 싸인 책이다. 묵시록은 당시 현재의 일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서술하면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즉 세상의 하고많은 역경과 수난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다.다.

2, 성전(聖傳)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21,25)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복음사가들이 기록한 복음 외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관습이나 전례 행위 등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느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를 ’거룩한 전통‘ 또는 ‘거룩한 전승’이라고 한다.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하느님 계시의 두 가지 원천으로 여기며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3. 성경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것은 교회의 권한

성경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수 세기에 걸쳐 쓰인 거룩한 책이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교도권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며 보존해왔다. 교회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울러 교우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의 권위 아래 올바르게 알아듣고 전해야 한다. 그 누구도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임의 해석하여 가르치거니 전할 수 없다. 반드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하고 알아들으며 전해야 한다.

4. 성경을 대하는 자세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다. 즉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응답하는 자세로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는 답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2티모 3,16-17)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읽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다.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경에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시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105항)

하느님께서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106항)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죽은 문자로 머물지 않으려면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한다(108항).